

어깨동무의 꿈

어린이어깨동무는
북녘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의료, 교육
지원을 통해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같은 키로
어깨동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평화교육 활동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이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이해와 존중,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한반도 평화읽기,
평화기행, 평화캠페인 등의
시민참여평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끼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어깨동무 2014 연간보고서

발행처 어린이어깨동무 | 발행일 2015년 5월 8일 | 발행인 권근술
편집인 최혜경 | 기획 김정혜 | 디자인 봉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217호
전화 02-743-7941~2 | 팩스 02-743-7944 | 홈페이지 www.okfriend.org
이메일 nschild@okfriend.org

차례

- 02 인사말
- 04 어깨동무가
걸어온 길
- 06 평화교육,
아이들과 평화로운
꿈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 07 함께하는 사람들
- 08 평화교육활동
- 12 시민평화활동
- 18 대북지원활동
- 20 시민의 목소리
- 21 회원편지
- 22 후원해 주신 분들
- 24 재정보고
- 25 어린이어깨동무와
함께해요

2014년을 보내며

지난 해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아픈 경험 속에서 남과 북 어린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음 깊이 다짐하고, 우리의 활동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 후원자 여러분, 어린이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민의 발걸음에, 실천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어린이어깨동무는 비평화적인 우리 일상, 남북관계의 모습을 알아챌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보다 반걸음 나아진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았습니다. 평화상상 컨퍼런스, 평화교육 강사단 양성, 학교방문 순회평화교육, 고성 평화기행

등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평화, 더 나아진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남과 북 어린이들이 같은 키로 자라게 하겠다는 첫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녘 어린이들을 위한 대북지원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도 제한적이고, 지원규모도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 갈등이 최고점에 달했던 2010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개성공단 내 탁아소에 케노피 공사와 같은 시설 개보수, 영양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 설비 교체, 천기저귀, 의약품 등을 지원하면서 북녘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기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의미와 성과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014년은 어린이어깨동무가 설사와 영양장애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하기 위해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을 건립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병원 건립을

위해 첫 삼을 떼을 때의 마음과 이 병원에서 건강을 찾은 북녘의 많은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이 병원 건립을 통해 남북 어린이들의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기억합니다. 이 기억은 어린이어깨동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녘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하는 원동력입니다.

2015년은 나와 다른 생각에 좀 더 열린 태도를 갖는 성숙한 개인,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자존심을 거두고 있는 남과 북이 한발씩 양보하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 나의 계획만을 들으라는 시간은 졸업하고, 서로 진심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어린이로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어깨동무에
변함없는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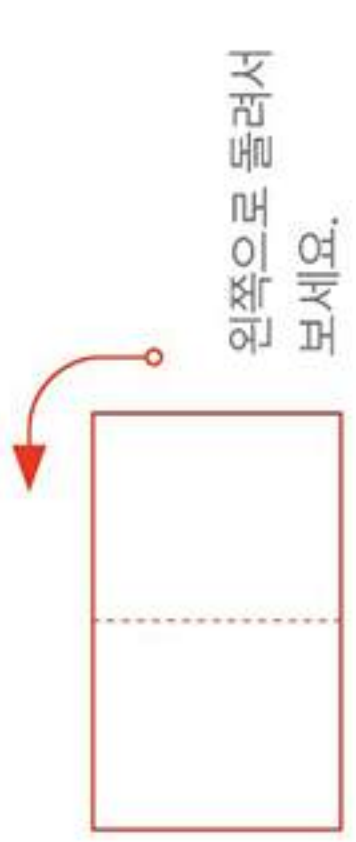
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들이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교육문화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같은 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북녘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의료, 교육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어깨동무가 걸어온 길



- 2013**
 - 남포 지역 어린이영양식 지원
 -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의약품 지원
 - 어린이평화한마당과 보이스오브피스코리아
 - 피스리더아카데미
- 2011**
 - 15주년 기념 가족평화캠프와 후원의 밤 개최
 - 어깨동무 노래, 15주년 홈페이지 제작
 - 1회 한중어린이평화캠프 참가
 - 남포와 장교리 지역에 의료·영양 지원
 - 시민참여프로그램 '한반도 평화읽기'
 - 일본 지진피해 긴급모금 및 지원
- 2009**
 - 평화실천을 위한 청소년모임 '평화아름이' 결성
 - 2차 북한 의료인 교육(중국)
 - 법인공간 이전(마포구 서교동)
- 2007**
 -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공우유공장등 준공
 - 3차 어린이대표단 방북
 - 3회 'DMZ 평화상' 수상
- 2005**
 - '평양 어깨동무학용품공장' 준공
 - 2회 어린이대표단 방북
 -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후원의 밤
 - 통일부장관상 수상
- 2003**
 -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캠페인
 - 6회 평화의 행진 '꽃들에게 희망을!'
 - 남북 의료인 간담회
 - 국제 어린이평화운동가 초청 강연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수상
 - 평화실천을 위한 어린이 모임 '평화지킴이' 결성
 - 2회 남북 의료인 간담회
- 2001**
 - '평양 어깨동무공우유공장' 첫 가동
 - 동아시아어린이 평화그림전 (2008년까지 총 8회)
 - 4회 평화의행진
 - '모여라 희망아! 달려라 꿈들아!'
 - '온겨레화해와평화상' 단체부문 수상
- 1999**
 - 2회 평화의행진 '새천년어린이선언 및 어깨동무통일문화제'
 - 휴전선 155마일 평화대장정
 - 어린이어깨동무의 날 '6.25를 평화의 날로' (2011년까지 총11회)
- 1997**
 - 1회 평화의행진 '어깨동무 통일대행진' 캠페인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

- 2014**
 - 개성공단 탁아소 시설 공사와 육아용품 지원
 - 평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평화상상컨퍼런스 & 원탁토론
 - 학교평화통일 강사단 '평화길라잡이' 양성
 - 글로벌 통일 캠프
 - 북한 의료인 교육(중국)
- 2012**
 - 개성공단 탁아소 보일러 설비 및 육아용품 지원
 - 남포 소아병원 의약품 및 소모품 지원
 - 동포어린이 그림책 지원 - 중국
 - DMZ 평화기행
 - 2012어린이평화선언 발표
 - 하자커뮤니티카페 - 수북한 밥상 운영
- 2010**
 - 신의주 수해 쌀 지원
 - 1회 평화아름이 캠프
 - 남포지역 의료·영양 지원
- 2008**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NGO 지위 획득
 -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 준공
 - 4차 어린이대표단 방북
 - 1차 북한 의료인 교육(평양)
 - 1회 중국 연길어린이그림전
 -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희망음악회
 - 18회 한국여자의사회 '길봉사상' 수상
- 2006**
 - '장교리 인민병원', '장교리·룡교리 공우유공장' 준공
 - 평화열차여행 '달려라 열차야, 만나자 친구야'(도라산)
 - 2회 피스메이커상 수상
- 2004**
 -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준공
 - 1차 어린이대표단 평양 방문
 - 원산 공우유공장 설비와 어린이시설 개보수 지원
 - 부산어린이어깨동무 발족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상' 단체부문 수상
- 2002**
 - 1회 남북의료인 간담회(평양, 2007년까지 총 5회)
 - 1회 동아시아어린이평화워크숍 (2013년까지 총 11회)
 - 남북코리아와 일본어린이그림마당 (일본, 2013년까지 총 12회 참가)
 - 1회 평화기행
 - 5회 평화의 행진 '안녕? 친구야! 함께 달려자!'
- 2000**
 - 1회 어린이평화캠프(2011년까지 총 16회)
 - 1회 평화교육 교사연수(2011년까지 총 9회)
 - 3회 평화의 행진 '남북결식어린이돕기 사랑의 공차기대회'
- 1998**
 - 사단법인 설립
 - 대표단 1차 방북(2014년까지 총 128차 방북)
 - 학교방문 순회평화교육 시작 (2014년까지 해마다 진행)
- 1996**
 - 1차 캠페인 '안녕? 친구야!'로 활동시작
 - 1차 대북지원(2014년까지 총 325차 지원)



평화교육, 아이들과 평화로운 꿈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분단 70년, 어린이어깨동무의 학교평화교육 시간,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왜 아직도 싸워요?”
“서로 이미 약속을 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말씀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못살게 된다는데,
통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2015년,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음.
아이들이 평화로 향하는 길에 어린이어깨동무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 권근술**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 조 형** 미래포럼 대표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

자문위원

-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 고석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김수옥** 공인회계사
- 김수정** 만화가
- 민병석** 전 국회도서관장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신성오**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 이용경** 전 국회의원
- 이호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 정경일** 전 아주대 교수
- 정영일** 변호사
- 최 용** 서울의대 명예교수
- 최 황** 서울의대 명예교수
- 하민우** 전 서울여자간호대학 이사장
- 한완상** 전 부총리
- 홍창의** 서울의대 명예교수

이사

- 김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김선우** 송암문화재단 감사
- 김수업**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 박귀원** 중앙대의대 교수
- 신희영** 서울의대 교수
-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 이은화** 이화여대 명예교수
-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 조정래** 소설가

- 최태원** 전 SK그룹 회장
-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 황용승** 서울의대 교수

감사

- 김영무** 변호사
- 김재록** (주)인베스트스글로벌 고문

운영위원

- 구근회** 문화기획가
- 김기춘**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 김귀옥** 한성대 교수
- 김영동**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 김영수** 서강대 교수
- 김영철**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
- 김유호** 유소아과 원장
- 김인원** 서울의대 교수
- 김재찬** 김재찬치과 원장
- 김준철** 가톨릭대 교수
- 김 현** 원불교 교무
- 김형국** 서울대 교수
- 도두형** 변호사
- 도 법**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류재수** 그림책 작가
- 문성근** 영화배우
- 문진수** 서울의대 교수
- 박노황**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 박미선** 서울대병원 임상영양계장
- 박영숙** 유엔 미래포럼 대표
- 박태웅** 전 KTH 부사장
- 서태지** 가수
- 손인자**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장
- 손지영** 서울대병원 진단 방사선과 행정실장
- 신연숙** 크라운해태 상무

- 안성기** 영화배우
- 오한숙희** 여성학자
- 유덕종** 한화43시티 상무
- 이상선** 전 은행초 교장
- 이상우** 연극연출가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정길** 한화시스템창호 대표
-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장남수** 이화여대 교수
- 장수현** 광운대 교수
-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
- 정명근** CMI 대표
- 정유성** 서강대 교수
- 정진엽** 서울의대 교수
- 조 은** 동국대 명예교수
-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 주세익** 서울대병원 임상병리과 수석기사
- 최원자** 서울시간호사회 감사
- 하월규** 매일유업 영양식사업본부장
- 황영현** 건축가
- 황윤옥** 서울시 교육감 참여·소통보좌관

홍보대사

- 김유석** 탤런트
- 이문식** 영화배우

사무국

- 최혜경** 사무총장
- 김윤선** 사무국장
- 공웅재** 대북협력팀 팀장
- 이성숙** 평화교육팀 팀장
- 김정혜** 홍보팀 팀장
- 배문주** 회원사업팀

분단된 한반도의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평화속에서 자라나고 경험해본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만남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교육문화활동을 펼칩니다.



평화 지킴이

어린이평화기자단 캠프
5월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역사현장을 방문하고 평화글쓰기를 연습하는 어린이평화기자단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9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이번 캠프를 통해 어린이기자단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민통선 분단체험학교 등을 방문하여 분단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글쓰기 강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DMZ 통일캠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동아시아 어린이 50명이 모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DMZ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전쟁상흔을 통해 과거 전쟁의 역사를, 향로봉과 인북천 등 잘 보존된 자연을 통해 DMZ의 현재를, 그리고 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해 DMZ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는 2013년까지 동아시아평화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캠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2기 평화지킴이 하루캠프 '나는 평화의 씨앗'
2014년 한 해 동안 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12월 6일 하루캠프를 통해 12기 평화지킴이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루캠프에 참여한 8명의 어린이들은 체험과 토론과정을 통해 평화와 분단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평화 이음이

2014 평화이음이의 다섯 가지 평화실천 프로젝트
어린이어깨동무 청소년모임 평화이음이 14명의 청소년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일이 진짜 대박인 이유'라는 주제로 세 가지 평화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평화멘토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인터뷰, 평화상상컨퍼런스 주제발표 및 원탁토론 참여, 2014 활동자료집인 '이심전심' 리플렛 발간이 주요 활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화이음이는 다양한 평화이슈와 관련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5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염원을 담은 '날개달린 평화편지'를 보냈고, 7월에는 1,137번째 수요시위에 참여해 위안부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천을 했습니다.

'이심전심 - 남북 함께 살아도 되는 거 아냐?' 리플렛 발행

평화이음이는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4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303명에 대한 통일외식 설문조사 내용과 '평화이음이 평화선언'이 담긴 '청소년들이 보내는 신호, 청신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 하반기에는 '이음들이 심사숙고해서 전하는 마음, 이심전심' 리플렛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은 부제인 '남북, 함께 살아도 되는 거 아냐'가 보여주듯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이유, 통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담겨있습니다. 평화이음이의 활동결과물은 더 많은 또래 청소년과의 공감으로 위해 30여 곳의 학교, 청소년모임에 발송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교류



한중어린이평화워크숍

9월 26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연길에서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들이 직접 만나 교류활동을 진행하는 한중어린이평화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네 명의 평화지킴이가 연길을 방문해 연길소년아동도서관 어린이들과 '윤동주 詩'를 주제로 교류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백두산과 두만강에서 분단의 아픔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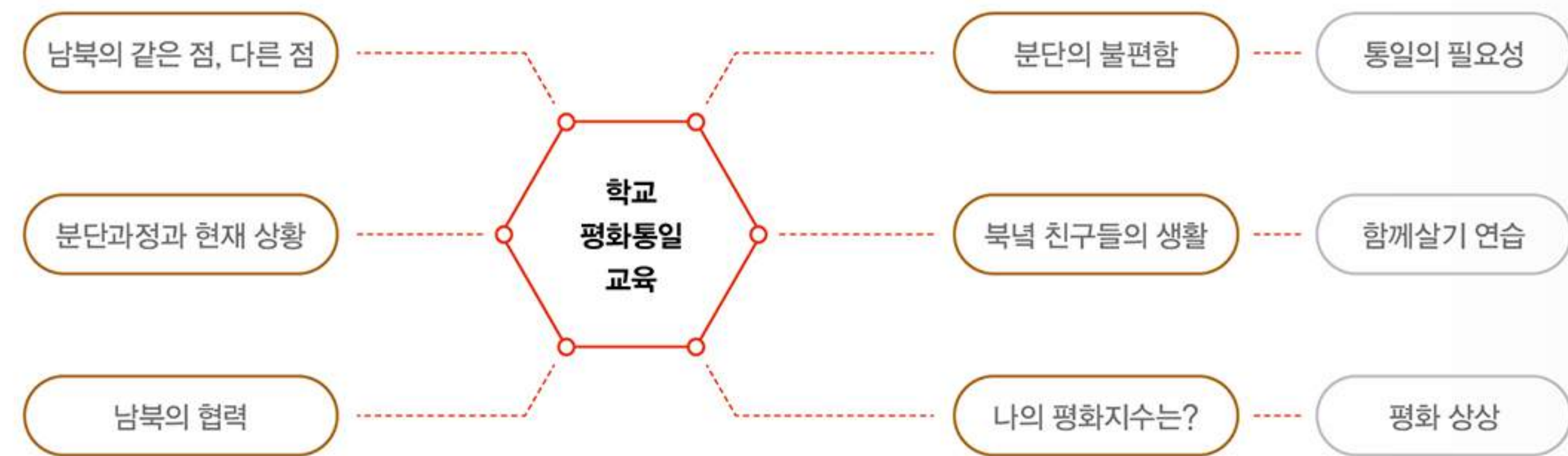
중국 동포어린이 도서 지원

동포 어린이들의 한글공부와 전통이기, 평화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동포 도서지원사업이 2014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올해는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에 그림책, 한글 전래동화, 평화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1,000여명 어린이와 함께 학교방문 평화통일교육

17년간 학교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해온 어린이어깨동무가 2014년에는 총 37학급 1,110명의 어린이와 함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역사의 아픔으로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는 북녘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들이 살고 있고, 그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교육은 학급단위로 진행되며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북녘 친구들의 생활을 이해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연습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이야기

말도 안돼요. 애들이 어떻게 만나요?

'남과 북의 대통령은 만난 적 있다.' 문제 뒤 바로 '남과 북의 어린이는 서로 만난 적 있다.'라는 질문이 있다. 학교 교육에서도 남북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쉬운 요즘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격한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다만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만나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아. 대통령이나 만나고 어른들이나 만나는 거지 애들이 어떻게 만나?" "아냐. 문제 낸 거 보니까 만난 적 있는 거 같아." "아냐. 그러니까 함정 문제인 거야. 애들은 못 만나."

이런 대화가 교실 구석구석에서 들려온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만난 적이~~ 있다!

"아, 진짜요? 말도 안돼요" "탈북자 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갔어요? 개네가 왔어요?" "만나서 뭐했어요?"

문제를 틀린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이 빠르게 질문이 쏟아져 나온다.

아니야, 진짜야. 만난 적 있어. 사진 보여줄게.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난거야. 평양에서 만난 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북한으로 간 거겠지? 만나서 뭐했겠어. 너희들은 친구 만나면 뭐해? 놀잖아. 만나서 같이 놀았어.

나는 빠르게 대답해 주면서 사진을 보여준다. 평양 지하철에서 만난 북녘 소녀, 함께 악기를 연주했던 만경대 소년학생공전 등의 모습들을... 역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사진을 응시하는 교실의 아이들.

서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왜 아직도 싸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린이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분단과 정전상태에 대한 이해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남과 북이 철저히 싸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남과 북은 서로 도운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도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문제에 함정이 있어. '서로'잖아. 우리만 도왔으니까 정답은 X야"

정답은 O~

아이들은 놀란 눈을 한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북한이 우릴 도와준 적이 있다고?

사진으로 확인시켜 준다. 어린이어깨동무가 후원하는 물품들, 건립한 병원들을 보여주고 1984년 남쪽 물난리 때 구호물품을 보내주는 북녘의 사진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놀라면서도 약간 안도하는 표정이다. 왜냐면 북녘이 남녘을 도와주는 사진은 '흑백'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조선시대랑 비슷한 느낌의 1984년, 약간의 안도와 함께 나온 질문.

"선생님, 서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왜 아직도 싸워요?"

"....." 순수한 물음에 나는 할 말을 잃는다.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



시민평화활동



평화통일교육강사단 평화길라잡이 양성

• 통일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평화적 시각을 갖춘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어깨동무는 평화교육강사단 '평화길라잡이'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4월에 시작해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론교육, 현장체험, 참관수업, 시범수업의 과정을 마친 평화길라잡이 7명은 10월에 드디어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도였지만 19명의 수료자, 7명의 강사를 양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길라잡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이라는 의의와 함께, '기부'하는 회원에서 '활동'하는 회원으로의 회원들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평화길라잡이 양성과정

일자	구분	강의명
4월	이론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된 교육 마음을 열어주는 평화 연극놀이 북녘, 또 다른 내 친구가 살고 있는 곳 어린이어깨동무 통일교육 만나기, 친해지기
	현장체험	민통선 분단체험학교
5~7월	수업참관	
8~9월	세미나	평화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
10월	시범수업	
10~11월	현장수업	

어린이어깨동무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명 한명 평화의 씨앗이 되어 더 큰 평화의 꽃을 피워줍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할 때 평화로운 세상은 다가 올 것입니다.



평화상상 컨퍼런스 & 원탁토론 평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 시민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던 '평화'에 대해 해법을 제안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평화상상컨퍼런스 & 원탁토론 '평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하 평화상상 컨퍼런스)을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롭느냐, 평화롭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 사회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평화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 한 이번 평화상상 컨퍼런스에서는 '북한', '놀이', '다문화' 등의 수업 신설, '이력서 출신지 미 기재법', '평화고민의 날' 제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상상 컨퍼런스는 한반도 평화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 속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 >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 2시~오후 7시
-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옴
- > 참가자 : 130여명
- > 프로그램
 - 여는 공연 : 와락 어린이난타
 -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 : 홍세화(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 일상에서 숨은평화찾기 : 편해문(놀이운동가)
 - 춤추는 평화 : 홍순관(평화활동가)
 - 한반도에서 숨은평화찾기 : 정영철(서강대 교수)
 - 청소년들이 내딛는 평화발자국 : 평화이음, 로드스콜라
- > 원탁토론 주제
 -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소외되는 친구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법률
 -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
 - 생업과 사회참여의 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 평화로운 아이로 키우기 위한 초등교육정책



DMZ 평화기행

매년 9월, 10월이 되면 어깨동무는 회원들과 함께 DMZ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남과 북, 그리고 그 사이의 DMZ. 분단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분단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DMZ 평화기행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분단을 느끼고, 통일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시작되었습니다. DMZ 평화기행은 주로 어린이 혹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른 어깨동무 프로그램과 달리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이 함께 분단, 통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세대 간 통일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평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DMZ 평화기행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통일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DMZ 지역을 걸으며 평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기도 합니다. 또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 분단 상황을 평화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DMZ 평화기행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평화감수성 함양을 도와주고 어른들에게는 실천하는 평화를 일깨워주는,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들입니다.

2011년 인제, 2012년 철원, 2013년 연천을 지나 2014년엔 고성으로 DMZ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남고성군, 북고성군으로 나뉘어져 있는 고성은 다른 곳보다 분단의 현실을 더 느낄 수 있는 고장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침체된 고성을 보며 모두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아파했지만, 화진포,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함께 할 때 더욱 커지는 평화의 힘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그림편지 보내기

글로벌 DMZ 통일캠프에 참석한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이 팔레스타인 친구들에게 희망의 그림편지를 그렸습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친구들이 더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림편지를 묶은 '팔레스타인 어린이에게 평화를' 영상은 유튜브와 어깨동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염원을 담은 '날개달린 평화편지' 교황에게 전달

어린이어깨동무의 피스리더인 평화이음리와 평화지킴이는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교황에게 '날개달린 평화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편지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한반도의 평화, 어린이들의 행복,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또래 친구들을 위한 슬픈 바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부의 새로운 방법 기부상품 '안녕? 티셔츠, 피스보틀'

'안녕? 티셔츠', '피스보틀'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기부상품입니다.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안녕? 티셔츠'는 어린이집 단체 티셔츠로, 가족티로 '피스보틀'은 주변 지인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구입만으로도 북녘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기부상품은 기부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MZ
평화기행
후기기억을 되살려
평화를
다시금 꿈꾸다

정경화 후원회원

“10년 동안 어깨동무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 어깨동무의 평화기행에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9월 초 익숙한 발신번호가 찍힌 문자를 받고는 마음이 움직였다. 오랜 외국생활 동안 어깨동무 소식을 이메일로 접하면서 돌아가면 평화기행 꼭 한번 다녀와야지 생각했지만, 막상 귀국하니 바쁜 일상이 닥쳐 평화기행은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받은 문자에는 개인적으로 나를 초대하는 오래된 친구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듯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세월호 사건, 장기화된 남북관계 경색, 첨예화된 정치적 갈등 등, 최근 우리 사회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깨동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고 다시 평화를 꿈꿀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며 참가신청을 하였다.

기행 당일 아침, 전날 밤 늦게까지 마무리할 일이 있어 미리 여행 준비를 해두지 못했고, 이번 여행에 동행하는 남편까지도 꾸물대는 바람에 집에서 조금 늦게 나섰다. 어린이들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 약속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높아 택시를 탔고, 늦지 않게 출발장소에 도착했다. 이번 기행에서는 두 대의 버스가 각각 사당역과 합정역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리 부부가 탑승한 사당차는 예정시각인 오전 8시 정시에 출발할 수 있었다. 김윤선 사무국장에게 의하면 정시 출발이 어깨동무 역사상 처음이라 한다. 택시를 선택해서 역사적 출발에 누를 안 끼쳤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기행지로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이번에 안내를 맡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준비한 영화, <고지전>이 상영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오래 지속되었던 백마고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 이번 기행지인 고성이 바로 그 비극의 장소인 것이다. 전쟁영화는 대체로 피하는 편이고 모자란 점도 보충하고 싶었지만, 연기 잘한다는 사람은 다 모아놓은 듯한 출연진에 좋은 영화라는 귀뜸까지 있어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버스 안이라 대사전달이 잘 되진 않았지만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전장의 비참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몇몇 장면에서는 터질 듯한 울음을 참느라 이를 악물며 보았다.

아침부터 너무 애를 쓰며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몹시 지쳐 화진포 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 깨끗하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를 보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날도 화창하고 바닷물 온도도 별로 차지 않아, 같이 여행 온 아이들이 잔잔한 파도에 온 몸을 맡겨 한참을 놀았다.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바로 이런 것이 평화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화진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승만 별장을 잠시 둘러보고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민통선 입구에도 착해 버스를 잠시 멈추자, 장충을 등에 매고 철모를 쓴 군인이 올라타 인원을 확인했다. 군인의 모습이 <고지전>에서 보았던 전쟁 당시 한국군의 모습과 닮아 있어, 아직도 우리는 휴전상태이지 종전된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 군인이 무언가 헛갈려 하며 멍쩍게 웃었는데, 소년의 웃음을 간직한 군인의 얼굴에서 또 다시 평화가 스치듯 비추는 것 같았다.

남편이 통일전망대를 와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솔직히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판문점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니 남편은 통일전망대와 판문점은 다른 곳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고성통일전망대는 처음이라 여기며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도착했다. 금강산의 끝자락과 동해바다를 만난 장관이 곧바로 눈에 들어왔다. 북녘 땅이 지척으로 보이는 것도 신기하지만, 수려한 풍경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같이 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원이 가로등의 모양 변화로 군사분계선을 구분해 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에 오백원짜리 동전을 넣고 북쪽을 들여다 본 순간, 어렵קות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이곳을 방문했던 것을, 약 25년이 지난 지금 금강산도 그 풍광 그대로, 한반도도 분단된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통일전망대에서 내려와 DMZ 박물관 관람을 했다. 규모가 상당히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 연혁이었다. 남북의 군인들이 계속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을 환기시키는 기록인데, 이 뿐 아니라 군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사실까지 더하여 생각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너무도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저녁에는 숙소인 금강산콘도에서 제일조선학교 럭비부 학생들의 도전을 담은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60만명의 트라이>도 보고, 함께 기행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넘게 어린이어깨동무와 함께 해온 후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물론 나도 감사장과 강원도 특산물인 황태선물세트까지 받았다. 오랫동안 함께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받을 만큼 제대로 마음을 썼던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다음날 아침 평화워크숍에서는 조별로 나뉘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았다. 초등학교생들로 이루어진 조에서 큰 웃음을 주는 토론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고, 극단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엄마의 입을 막는다’였다.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왕곡마을이었다. 전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다섯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모양이 배를 닮아 길지 형상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포탄이 빗발쳤을 때도 탄두가 모두 분리된 채 떨어져 피해를 입지 않았고, 1996년 고성산불 때도 마을 가까이까지 번져왔던 불이 저절로 꺼졌다고 한다. 안내를 맡은 해설사 아저씨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설화, 머리가 다섯 개이고 몸이 하나인 새 ‘오두도’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오두도’의 다섯 머리가 몸을 독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가 결국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왕곡마을 주변으로 떨어졌는데, 각각의 부분이 다섯 봉우리가 되어 마을을 수호하게 되었다는 줄거리이다.

왕곡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떡메치기를 했는데 제법 자세가 나오는 남자어른들 덕에 구경도 잘하고 맛있는 떡도 나누어 먹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깐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다.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고성군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왕곡마을에서 가까운 북쪽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고성군이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어떨까? 남과 북의 젊은이들은 총 대신 떡메를 손에 들고 짝을 지어 주거나 받거나 떡메를 치고, 옆에서 나는 추임새나 넣으며 구경하다가 그 딱 한 조각, 평화가 깃든 떡 하나 얻어먹는 것이다. 그 날은 오리라.

대북지원활동



개성공단 탁아소에
시설 공사와 육아용품 지원

북녘 어린이를 돕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돕는
것입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북녘 어린이를 위한 의료,
영양, 교육 지원을 통해
남북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같은 키로 어깨동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어린이어깨동무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북녘 노동자들의 자녀 600여명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탁아소에
시설공사를 하고, 육아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정원 200명인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영유아들이
함께 지내다보니 위생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후원과 다음 희망해 '개성탁아소 아이들에게 깨끗한 기저귀를 보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한 3,200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개성공단 탁아소 영유아들을 위한 천기저귀
1,000개, 기저귀 커버,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소독기,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휴게 공간 케노피 공사, 탁아소 내벽 방수공사, 지붕공사 등을 진행하여 탁아소 영유아들과
엄마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북녘 의료인 교육

어린이어깨동무가 연변대학교와 협력하여 북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과 의료인들이 연변대학교 의료인과 함께 병원시설 참관,
임상사례 연구, 최신 의학자료 연구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10주년
좌담회 및 기념행사 '북녘 어린이들이 잘 지내니?'



북녘 최초의 설사, 영양장애 전문 병원인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의 건립 10주년을 맞아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6일,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방향 모색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과 복지환경의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 행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녘 어린이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녘 어린이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1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어깨동무 후원회원, 보건의료 전문가,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건축 기술진들의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좌담회 프로그램

- > 사회 : 신희영(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 > 발표 1 : 북한의 경제현황과 복지환경의 변화 - 이철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발표 2 :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길 - 유원섭(충남대 의대 교수)
- > 발표 3 : 북의 의료인 교육과 우리의 역할 - 황상익(서울대 의대 교수)
- > 토론 : 김유호(소아과 의사), 이혜원(서울대대 연구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병호(한양대 교수)



시민의 목소리

다음 희망해를 통해 '개성공단 탁아소 아이들에게 깨끗한 기저귀를 보내주세요'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Lunatic

아이들에게 깨끗한 기저귀 꼭 사주세요. 이것밖에 기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꽃님이

남과 북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mily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자유와 해방

건강하게 자라서 화해와 협력과 통일의 씨앗이 되거라.

마운틴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희망을~!

숨은천사

뽀송뽀송한 아기 엉덩이는 건강의 필수조건이에요~

눈꽃

뭐든지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

숨은천사

좀 더 위생적으로 성장 할 수 있길... 민족 화해에 기쁨이 되길...

숨은천사

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아이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크릿

예구. 귀여운 아가들 내 아기만 소중한 게 아니죠. 아가들은 모두 천사 같아요.

숨은천사

개성 아이들아,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히 자라다오. 너희는 우리의 미래란다.

권아영

아이들아 사랑해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크도록 이모가 기도할게. 장하고 장한 우리 아기들, 소중한 생명들, 언젠가 꼭 만나.

Elliot

이념의 굴레를 사랑의 기치로 넘어서~

숨은천사

개성 뿐만아니라 북한의 전역의 탁아소에 혜택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숨은천사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던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인명명

기저귀 기적이 일어나기를.

숨은천사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다른 아가들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freeox

남북의 아가들이 모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한반도를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bellflower

예쁜 마음을 지닌 통일세대로 잘 자라주세요. ^^

회원편지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험한 일에 내몰리지 않고, 교육 받으며 자라길.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성휘 후원회원

후원 10년을 기념하여 손수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선물을 주시니 너무 기쁘네요.

10년 전, 첫 직장을 다닐 때 우연히 어린이어깨동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생각이 있어서 아니고(5,000원에 무슨 대단한 결심이 있었겠어요.) 회사에서 누가 후원 관련 안내서를 보여줬는데 무심결에 가입했습니다.

몇 년 후 한동안 백수로 지내게 된 적이 있었는데 통장 잔고는 하나도 없고, 한 푼이 아쉬울 때였어요. 빈 통장을 바라보다 5,000원씩 빠져나가는 어깨동무 후원을 발견하고 해지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 남을 위한 일에 5,000원도 아까워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늘리며 아이들을 후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깨동무를 시작으로 남한 어린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곳곳에 제 아이를 두는 기쁨을 누렸죠. (전 싱글 여성입니다.) 지금은 세 곳에 개별 후원을 하고 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제 몫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린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어른들이 도와줘야 할 텐데, 특히 북한 아이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아이들이니 어깨동무 후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000원으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이라 생각해서요.

벌써 10년이 지나 5,000원으로는 한 끼 밥도 못 사먹는 시절이 됐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험한 일에 내몰리지 않고, 교육 받으며 자

라길 바랍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깨동무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후원 사업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대북관계가 악화될 때에는 더 힘이 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부디 귀한 소명을 생각하시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편리한 자동이체 탓에 북한 어린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을 권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체가 되지 않은 달도 있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아마 제 주머니 사정도 그러했을 겁니다.

어린이어깨동무에 계시는 분들, 북한에서 함께하는 분들, 북한 어린이들, 모두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손수건 잘 쓰겠습니다.

모금액
2,593,11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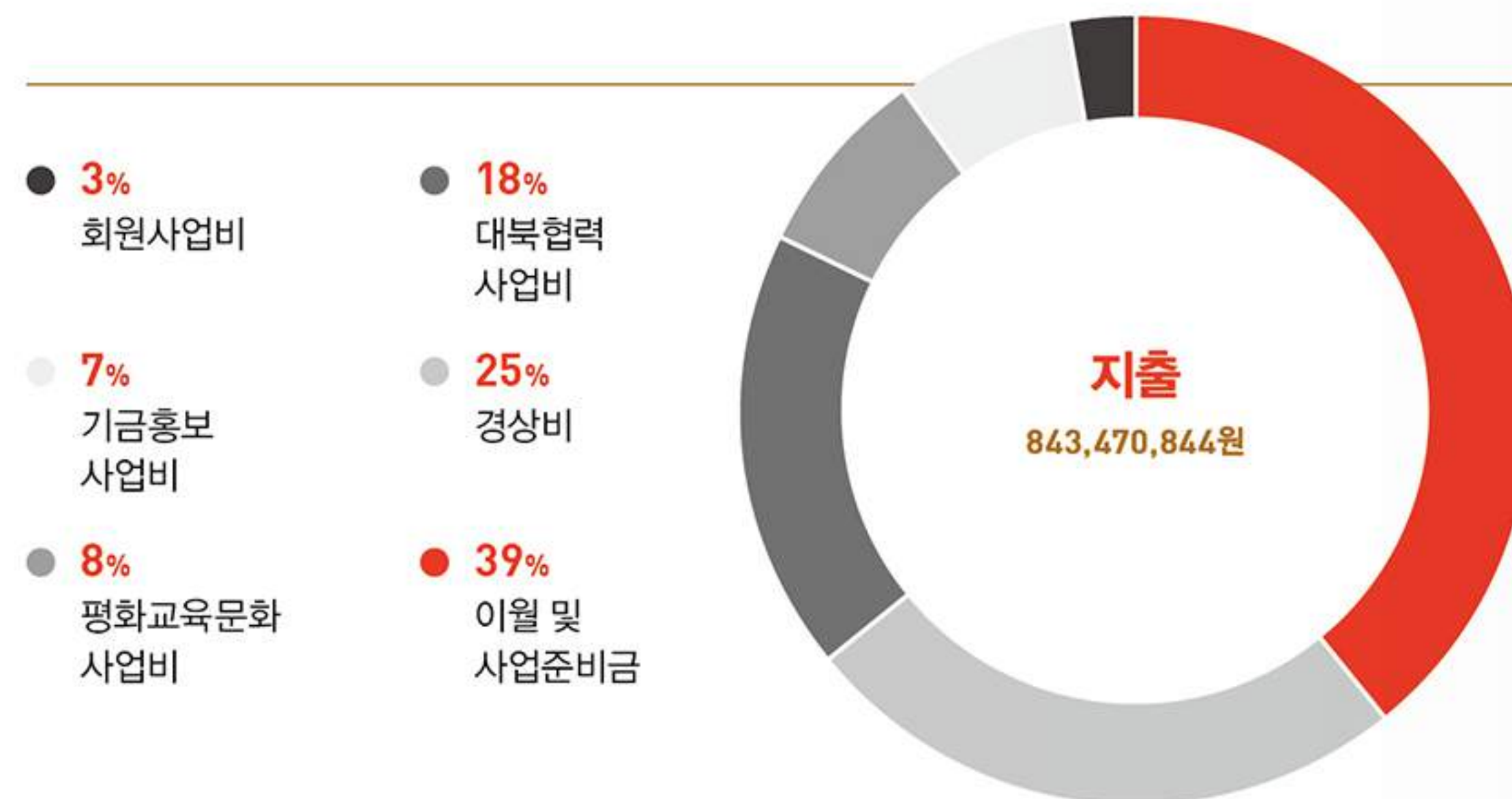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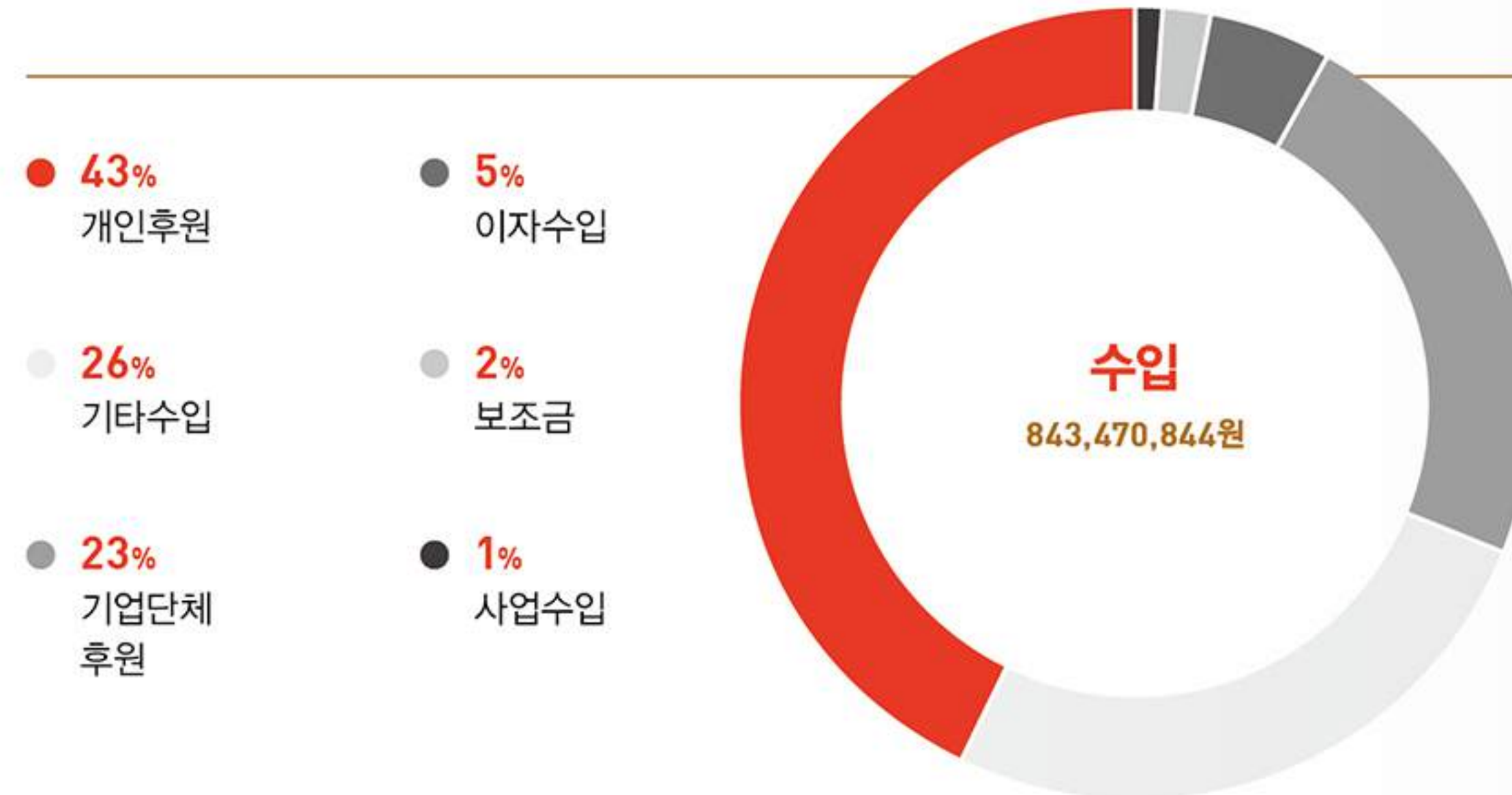
참여자 수
3,226명

모금기간
2014.08.27~10.26

DoM | 희망해

재정보고

어린이어깨동무는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어깨동무와 함께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 > 북녘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보건의료, 교육, 영양 지원활동에 쓰여집니다.
- > 남북 어린이들이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교육 문화활동에 쓰여집니다.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 > 연말 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E-뉴스레터와 단체 회지를 보내드립니다.
- > 어깨동무의 모든 행사에 초대되며 참가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 어깨동무가 발간하는 도서, CD 등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지로, 무통장 입금

홈페이지(www.okfriend.org) 또는
전화(02.743.7941~2) 신청

온라인 후원

홈페이지 : www.okfriend.org
티투게더 : <http://ttogether.tworld.co.kr>
해피빈 : <http://happylog.naver.com/nschild.do>

후원계좌

예금주 : (사)어린이어깨동무
하나 555-810001-36304
국민 762301-04-184993
농협 317-0002-3891-91
우체국 011890-02-151884
우리 165-084016-13-601
신한 577-01-001190
기업 047-031074-01-010
SC 303-10-013621

남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자라나 어깨동무 하려면 키도 비슷하고 마음도 통해야 합니다. 남북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